

이용대·김덕현 마지막 올림픽 무대 씩씩한 퇴장



15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세단뛰기 예선에 출전한 김덕현이 3차 시기에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금메달 0순위' 배드민턴 남자복식 8강서 탈락 김, 육상 멀리뛰기 이어 세단뛰기 결선 진출 실패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지역 출신의 두 간판 스타가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씩씩히 퇴장했다.

배드민턴 금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은 화순 출신의 이용대(28·삼성전기)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8강에서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육상 변방 한국의 자존심 김덕현(31·광주시청)은 부상 후유증으로 멀리뛰기에 이어 세단뛰기에서도 결선 진출권을 넘지 못했다.

유연성(30·수원시청)과 호흡을 맞춘 이용대는 1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 센트루 4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8강전에서 고위시엠-탄위키에게 1-2(21-17 18-21 19-21)로 역전패했다.

세계랭킹 1위인 이용대-유연성은 첫 번째 게임에서 동점을 주고받는 접전을 벌인 끝에 21-17로 승리를 장식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공세에 13-18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18-19까지 추격에 나섰지만 역전에는 실패하면서 18-21로 두 번째 게임이 끝났다.

8강을 놓고 벌인 마지막 게임에서 이용대-유연성이 4-1로 초반 흐름을 잡았지만 상대의 맹공에 매지포인트(16-20)까지 내줬다. 이용대-유연성은 19-20으로 따라붙으며 역전을 노렸지만 마지막 1점을 허용, 8강에서 4년의 도전을 멈춰야 했다.

지난 14일 나흘로 남자 100m 예선에 나선 김국영(25·광주시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록 10초16에 미치지 못하는 10초37로 탈락한데 이어 김덕현(31·광주

시청)도 아쉽게 올림픽 결선 진출의 꿈을 접었다.

김덕현은 1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16m36을 기록하면서 예선에 참가한 48명 중 27위에 그쳤다. 올림픽 남자 세단뛰기에서는 16m95를 뛰거나 상위 12명 안에 들어야 결선에 진출한다.

17m10라는 최고 기록이자 한국 신기록을 보유한 김덕현은 자신의 기록에 74cm나 부족한 거리에 착지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덕현은 1차 시기에서 발 구름판을 잘못 밟아서 실격 처리된 뒤, 2차 시기에서 16m13을 기록했다. 3차 시기에서 16m26으로 거리를 늘렸지만 12위 안에 들기에는 거리가 많이 부족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훈련 도중 왼 발 뒤꿈치를 다쳤던 김덕현은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 올림픽에서도 결선이라는 꿈의 무대에 서지 못했다.

그는 앞서 13일 열린 남자 멀리뛰기 예선에서도 14위(7m82)를 기록하며 12위까지 주어지는 결선 티켓을 놓쳤다.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동시에 올림픽 진출권을 따냈던 한국 도약 종목의 일인자 김덕현. 3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올랐던 김덕현은 이번에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끝냈다. /김여울기자 wool@



15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센트루파발리온 4에서 열린 배드민턴 남자 복식 8강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패한 한국 이용대가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10-10' 달성 태권도에 달렸다

오늘부터 김태훈·이대훈·차동민·김소희·오혜리 5명 출격 금메달 사냥

더딘 우리나라의 메달 레이스에 속도를 내줄 든든한 지원군이 출격한다. 바로 중추국의 태권도 5남매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태권도 대표팀이 17일(이하 한국시간)부터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58kg급 김태훈(동아대)·68kg급 이대훈(한국가스공사)·80kg초과급 차동민(한국가스공사), 여자 49kg급 김소희(한국가스공사)·67kg급 오혜리(충천시청) 등 다섯 명이 출전한다.

역대 올림픽 태권도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 5명이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참가국 중에서 5명이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2012년 런던 대회까지는 한 나라에서 최대 남부 2체급씩, 4체급에만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리우 대회부터는 세계 태권도연맹(WTF)이 올림픽 랭킹에 따른 자동출전권을 부여하면서 한 나라에서 체급당 한 명씩, 최대 8체급 모두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처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치러졌다. 한국은 2012년 런던 대회까지 네 차례 올림픽에서 금 10개, 은 2개, 동 2개를 수확하며 효자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2000년 금 3개·은 1개를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금 2개·동 2개의 성적을 냈고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출전 선수 네 명이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다만, 전자호기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런던 대회에서는 여자 67kg급의 황경선만 금메달을 따고 이대훈이 남자 58kg급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리우 대회에서는 출전 선수 다섯 명 모두 금메달 후보이지만 적어도 2~3개의 금메달은 획득해 4년 전의 부진을 털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태권도 대표팀의 선전이 절실하다. /연합뉴스

금빛 레이스의 첫 테이프는 17일 김소희와 김태훈이 끊는다. 김소희는 2011년 경주 대회에 이어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거꾸 우승을 차지한 월드 챔피언 출신이다. 2014년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한 김태훈은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태권도 4대 메이저대회 우승을 휩쓸는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한다.

18일에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WTF 올해의 선수로 뽑힌 이대훈이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런던 대회 남자 58kg급 은메달리스트 이대훈은 리우에서는 체급을 68kg으로 올려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대훈 역시 그랜드슬램에 도전한다.

19일에는 만년니 오혜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오혜리는 올림픽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카잔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으로, 금메달 후보로 전혀 손색없다. 태권도 경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최종량급인 차동민이 출격한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권도 대표팀 박종만 감독(왼쪽 두 번째)과 선수단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 갈레앙 공항을 나서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대훈선수, 박 감독, 김태훈, 김소희, 오혜리, 차동민선수. /연합뉴스

“이제야 실감”... ‘전종목 석권’ 양궁팀 금의환향

인천공항 시민들 몰려 북새통

리우올림픽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 양궁 대표팀 선수단이 16일 귀국했다.

문형철 양궁 총감독을 필두로 남자 개인전 금메달 구본찬(현대제철), 남자 단체전 금메달 김우진(정주시청), 이승운(코오롱엑스텐보이즈), 여자 개인전 금메달 장혜진(LH), 여자단체전 금메달 최미선(광주여대), 기보태(광주시청)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은 “비행기에서

는 실감을 못 했는데, 많은 분이 나와 이제 실감 난다”며 “16강전 남북 대결이 가장 부담됐다. 4강전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어 어려웠는데 생각하지 못한 2관왕을 기록해 기쁘다”고 말했다.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구본찬은 “무조건 단체전을 따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개인전 준비는 많이 못했다. 8강전 때 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선수가 슈트오프 때 8점을 쏘더라. 하늘이 내려준 금메달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예선에서 72발 합계 700점을 쏜 세계기록을 새로 썼지만 32강에서 떨어진 김우진은 “광장이 허망했다. 지금부터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미선은 “개인전을 시작한 뒤 부담이 점점 커졌다. 그래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기쁘다”라고 밝혔다.

SNS를 통해 깜짝 결혼 발표를 한 이승운은 “빨리 결혼 사실을 알리고 싶어 비행기를 갈아탈 때 SNS를 통해 올렸다”고 말했다.

올해 21살인 이승운은 1살 연하인 대학생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2연패인 실패했지만, 단체전 금메달을 딴 기보태는 “출국하기 전부터 2연패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빨리 집에 가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연합뉴스

손연재 리우 입성

러시아팀과 현지 적응 훈련
사상 첫 리듬체조 메달 노려

리우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할 손연재(22·연세대)가 한국 선수단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리우에 입성했다.

손연재는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갈레앙 국제공항에 러시아 리듬체조 대표팀과 함께 도착했다.

손연재는 지난달 말부터 상파울루에서 러시아 대표 선수들과 함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소화한 뒤 리우로 건너왔다.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기량을 키운 손연재는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도 러시아 대표팀과 함께 하며 막판 점검을 했다.

런던 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팀 동행 효과를 톡톡히 누린 손연재는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인 이번 리우 대회에서도 러시아 대표팀의 상파울루 캠프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조절했다.

손연재는 이번 리우 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전에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초의 메달을 노린다. 러시아의 세계 ‘투톱’인 쿠드랴체바, 마루이 이번이 없는 한 금, 은메달을 양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손연재에게 기대할 수 있는 메달은 동메달 하나다.

세계 랭킹 5위인 손연재는 하나의 동메달을 놓고 우크라이나의 간나 리자트디노바(4위), 벨라루스의 스타뉴타(6위) 등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손연재는 현지시간으로 19일 개인종합 예선, 20일 개인종합 결선에 나선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15일(현지시간) 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응 훈련을 마치고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 갈레앙 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